

목조와 간화 차이점 분석

‘목조선 연구’ 김호귀 지음



리에서 “좌선을 통해 본래성불을 자각하는 것이 목조선 수행의 기본구조다”며 “목조선은 광지정각이 주장한 것으로 몸으로는 묵묵한 좌선수행으로 일관하는 ‘묵(默)’과 마음으로 본래부터 깨달은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조(照)’를 의미한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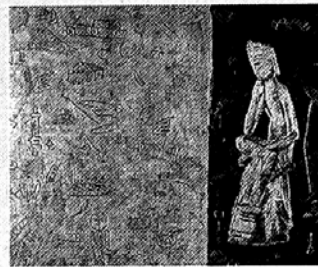
이처럼 이 책은 목조선 성립의 사상적 배경에서부터 조동종지의 성립, <광지록>에 나타난 목조선, 목조와 간화의 차이 등을 살핀다. 또한 이 선법이 우리나라와 일본에 전래돼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밝히고 있다.

특히 지은이는 광지정각의 실천적 좌선법의 특징과 목조선의 근본 교의인 오위사상(五位思想)과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깊이 있게 접근한다. 값 2만원.

김중근 기자

선학을 전공한 한 소장학자가 화두선 일변도인 우리나라 선불교에 ‘왜 간화선이지 않으면 안 되는가’란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그는 역설적이게도 간화선의 특징을 목조선의 비교를 통해 살핀다.

신간 <목조선 연구>(민족사)는 그 연구의 결과로, 초기 선종의 좌선관을 비롯해 목조선의 여러 특징들을 조목조목 탐구한다. 지은이는 동국대 선학과 강사 김호귀 씨. 그는 들머



○호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왼쪽)’와 이월종 씨의 ‘생활속의 중도(가운데)’, 그리고 박성식 씨의 ‘타입인 타입(오른쪽)’.



“불교미술 속에 깨달음 있어요”

‘불교미술을 보는 눈’ 김영재 지음

불상과 경전 그리고 탑은 한 몸이다. 이름도 생김도 다르지만 본질을 향해 다가가면 셋 다 ‘부처님 법신(法身)’으로 귀결된다.

신간 <불교미술을 보는 눈>(사계절)은 고대부터 최근까지의 불교미술 작품들을 망라해 불교미술을 보는 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불교미술이 어떻게 한 몸인지를 밝혀내는 책이다. 지은이는 동국대 불교대학 응용불교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영재 씨.

책은 ‘불교미술이 뭐예요’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있다며 세 점을 내놓는 것으로 시작된다. 호암미술관 소장 ‘수월관음도’, 이월종 씨의 ‘생활속의 중도’, 박성식 씨의 ‘타입인 타입’이 바로 그것이다. 지은이는 그 그림에 대해 이렇게 평한다. ‘수월관음도’는 화승이 그린 것으로 까다로운 도상을 눈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이른 작품이며, 이월종 씨의 ‘생활속의 중도’는 테마는 불교 교리이지만 교리 해설을 위해 표현의 자율성을 제약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박성식 씨의 ‘타입인 타입’은 불상을 우

리 중생의 삶과 행위와 고락 그리고 애환을 심는 배로 해석한다고 설명한다.

지은이는 시대와 작가의 사상 그리고 배경이 다른 세 작품을 비교한 다음 독자들에게 “불교 미술을 어떤 것인가”라며 한 점을 선택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되물을 수 있는 물음에 미리 뜻을 박는다. “신앙과 포교 등의 목적으로 조성된 것이 불교미술이 아닐까요?”라고 반문하기 십상이

교리·일화 작품속에 녹여 부처님 사상·숨결 나타내

라고. 신앙과 포교를 목적으로 한 작품만을 불교미술이라 한다면 ‘생활속의 중도’와 ‘타입인 타입’은 불교미술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책의 제목에서 엿볼 수 있듯이 이 책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불교미술을 보는 시각을 새롭게 갖고 작품 속에 깃든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자는 것이다.

세 점의 도판을 통해 불교의 미술을 보는 눈을 뜨게 한 지은이는 불화와 불

보살상 등 2백여 장의 도판을 제시하면서 불교미술의 본질적인 문제로 독자를 안내한다. 특히 불교미술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드러내는 인물은 심오하다.

지은이는 불교미술을 오케스트라에 비유한다. 그리고 그 오케스트라를 가늠하게 했던 악보와 음표 등은 부처님의 행적과 숨결 사상이 담긴 원시경전으로 보고 있다. 불교 미술이 대부분 불교의 교리나 경전, 일화, 이득 등을 재해석하고 있기 때문. 이러한 진리의 발견과 깨달음으로 불교미술을 보아야 한다는 것이 불교미술을 보는 그의 시각이다.

이러한 지은이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한 가지 예. 돈황 막고굴의 불상과, 불국사의 다보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동제유각보탑을 비교하면서, 세 작품의 모양새는 다르지만 불상은 법신을 상징하고 불탑은 의인화된 법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부처님과 법신으로 집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처럼 이 책은 불교 미술을 보는 올바른 시각과 그 속에 함축된 불교 사상을 체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동안 쏟아져 나온 편린일탈적인 문화재 안내서의 책과 다른 내용 전개도 이 책의 깊이를 높여준다. 값 1만6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민화로 보는 불교이야기

김정빈 ‘불교란 무엇인가’ 시리즈 5권

불교의 기본 상식부터 부처님 생애, 고승 일화, 경전 등을 담은 민화로 보는 불교 이야기 시리즈가 나온다.

구도소설 <단(丹)>의 작가 김정빈 씨가 글을 쓰고, 민화가 최병용 씨가 그림을 그리는 이 시리즈는 <불교란 무엇인가>(책이있는마음)를 시작으로 모두 5권이 출간될 예정이다.

최근 출간된 1권 <불교란 무엇인가>는 흔히 불교하면 연상되는 상식들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불교가 무엇인가’, ‘알고 하는 절 구경’ ‘들여다 볼 수 없었던 스님들의 세계’ 등 6개의 장으로 구성된 이 책은, 사물(佛物)·법(法)·운(運)·목(木)이나 수(水) 등의 의미와 유래를 풀이하고 있다. 값 8천원.

김중근 기자



금산사·월정사 등 사찰여행 길잡이

우리사찰답사회는 사찰여행 길잡이 ‘가쪽과 함께 떠나는 사찰여행’ 시리즈를 펴낸다.

<황악산 직지사>(문예마당)를 시작으로 <모악산 금산사>, <오대산 월정사·상원사>, <오봉산 낙산사>, <설악산 선유사> 등 4권이 잇따라 출간됐다.

김중근 기자



26권으로 완간될 이 시리즈는 사찰의 창건 유래와 창건 설화, 중심 사상을 비롯해 전각, 탕화, 석탑 등을 컬러 사진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각권 3천8백원.

‘잉잉? 원원!’ 신현암 지음

세상을 즐겁게 살아가는 법



논리를 펴낸다. 특히 이 책은 변화에 대한 강박관념으로 피로가 누적된 이들에게 즐겁고 쉽게 변할 수 있도록, 세상을 바라보는 원칙

하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경영지침서다. 지은이는 세상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물론 직장 과 조직도 변화해 성공할 수 있다는

과 자기 개발의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세상과 고객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똑바로 응시하고 있다면 즐겁게 기업과 조직 그리고 자신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은이의 주장을 따라가다 보면 변화는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님을 느낄 수 있다. 예나 지금이나 조직은 튼튼한 기본을 바탕으로 한 창의력을 가진 사람을 원한다. 이 책은 왜 그런 사람을 요구하는지,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독자들을 설득한다. 값 9천5백원. 김중근 기자

◇금주의 베스트북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나의 행자시절	박원자	다함미디어
2	불교를 알고 싶어요	돈 관	우리
3	합회 참회기도법	김현준	효림
4	선의 내침반	현 각	열림원
5	은 세상은 한송이 꽃	무 심	열암사
6	지장경 강의	무 비	불광
7	금강경 강의	혜 거	부디스토폴
8	선재스님의 생활음악	선 재	다지인하우스
9	영가천도	우 룡	효림
10	질을 기차게 살하는 법	정 권	뜻따의 마음

도서 안내: (02) 737-0695

기도 및 영가천도 범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기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타크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여러가지 상황의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켜야 할 마음가짐까지 크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담겨 있습니다. 4×6판/값 3,500원

일타크스님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기도』신드롬을 일으켰던 바로 그 책! 일타크스님 자신과 도반·선배·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 성취 영험담 52편을 모아 엮었습니다.

일타크스님 지음 / 신국판 / 값 5,000원



남국선원장 해국스님께서 알기 쉽고 재미있게 엮으신

천수경 천수신앙

신국판 / 값 5,000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독송하는 천수경! 심오한 뜻을 읽고 기도하면 성취가 빠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비와 관세음보살님께서 깨친 진리를 문자로 표현한 천수경. 그 가르침을 ‘나’의 것으로 만들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와 위신력이 언제나 함께하고, 능히 심중의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영가천도는 어떻게 하나요?”

우룡크스님의

영가천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동경·사경천도법, 사심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과 방법을 우룡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불교신행연구원 김현준 원장의

참회·천도·기부

참회는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일입니다. 곧 ‘나’의 참된 행복을 위하여 맺힌 것을 풀고, 풀 것을 더욱 편안하게 이끌어가는 모범이 참회인 것입니다.

이기적인 ‘나’를 비우고 무조건 참회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참회하고 기꺼이 받고자 할 때 모든 것은 풀립니다.

이 책을 읽으시고, 정성스런 참회를 통하여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속으로 들어가는 물꼬를 띄어 보십시오. 가피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행복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합니다.

4X 6판 / 값 3,500원

<구성>
I 업장과 참회 II 가까운 이를 향한 참회
III 절을 통한 참회 IV 참회염불
V 참회행자의 마음가짐 VI 이참법과 대승유정참회

영가천도를 위한 지침서 지장신앙·지장기도법

영가천도의 보살인 지장보살! 그분은 영가천도 뿐 아니라 업장참회와 무한행복, 대해탈까지도 능히 안겨줍니다.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축원과 함께 영가천도를 비롯하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에찬문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지장경 동경 및 지장보살 예찬,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책.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되면, 영가천도·업장소멸·소원성취·향상된 삶을 이루게 됩니다.

김현준 편역 / 신국판 / 값 5,000원